



작지만 열정이 강한 CTL, 대학 CTL 중심에 서다!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 ● ●
남 민 우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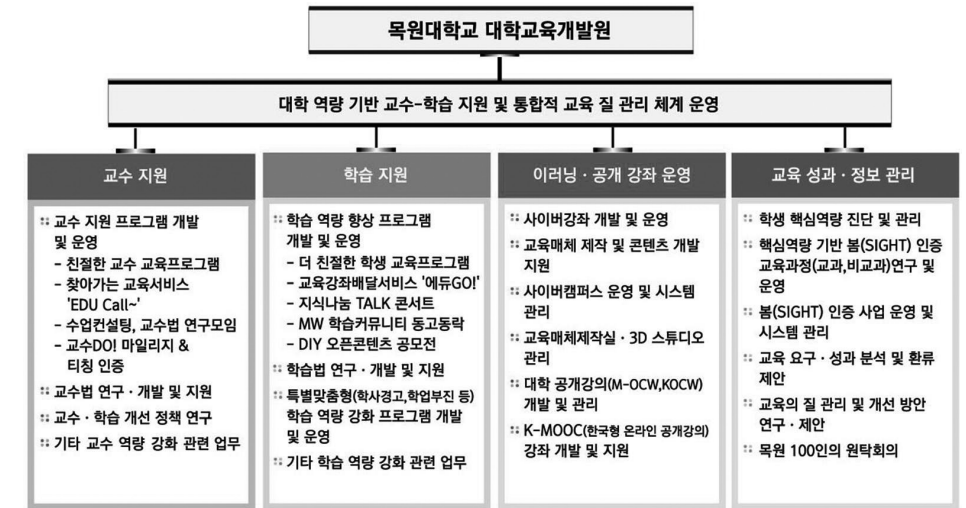
몇 해 전 겨울, 서울대학교 CTL에서 개최한 동계 심포지엄에서 목원대학교는 'CTL, 뻔하지 않은 몇 가지 편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대학 CTL 프로그램들을 진부하지 않게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수행한 여러 사례들을 종합한 내용에 대해 당시 사회를 보신 모 대학의 센터장께서 지방 대학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엄청난 열정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호평을 주신 기억이 있다.

사실 지방 중소형 대학의 CTL은 대학 내 조직의 위상이나 예산, 인적 구성원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에 비해 다소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이런 여건 속에서 CTL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고군분투'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표현인 듯 하다. 그 당시 목원대학교 CTL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작지만 열정만큼은 강한 CTL로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대학이 ACE 사업에 선정되는데 일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4년도에 ACE 사업에 선정되면서 4년간 국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 CTL의 인프라와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엄청난 성과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존 교수-학습 지원사업과 이러닝 강좌 운영 외에 교육 인증, 교육성과 및 질 관리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교수학습센터에서 대학교육개발원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고, 대학 내의 부서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은 '대학 역량 기반 교수-학습 지원 및 통합적 교육 질 관리 체계 운영'을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학교육의 역량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법 연구·개발 및 지원, 교수-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러

닝 강좌 운영 및 시스템 지원, 교육인증사업 운영, 교육성과 분석 및 질 관리 연구와 대학 교육 정책 제안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지원, 학습지원, 이러닝·공개 강좌 운영, 교육성과·정보 관리의 4개 부(部)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 높은 양질의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교수·학생 역량기반 지원 프로그램으로 '친절한 교수 교육프로그램'과 '더 친절한 학생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교수·학생 역량 맞춤형 교수법·학습법 워크숍과 방학 중 인텐시브 연수과정, 온라인 교수법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일회성 특강에서 벗어나 「역량 진단 → 역량기반 교육 설계 및 운영 → 교육이력관리(e-포트폴리오) → 티칭/러닝 인증」의 체계화된 교육지원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로 [교수] EDU Call~, [학생] 에듀GO!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교수법, 학습법 특강이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고동락(학습동아리, 튜터링), DIY 오픈콘텐츠(학습법,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UCC 등) 공모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확산을 위해 권역 내 대학들과 연계하여 연합 공모전과 지식나눔 TALK 콘서트를 중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맞춤형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편입생, 전과생 등의 학업적응계층 맞춤형 지원과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학사경고자, 학업부진자 등을 통합 지원하는 '열!정!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교육 질 관리 프로



그럼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혁신적인 SMART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이러닝 콘텐츠, 목원 공개강의(M-OCW), K-MOOC 등을 지속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거나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O2O 시스템'을 LMS에 구축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 실시간 소통과 참여를 위해 많은 과목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기존 교수-학습 지원사업 외에도 교육성과 및 질 관리 사업으로 대학 인재상의 핵심역량 기반 교과·비교과 통합 관리 및 인증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역량기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이력관리를 통해 핵심역량을 인증해 주는 봄(SIGHT) 인증 사업을 수행하며 대학 전반의 교육 질 관리 체계를 선도하고 있다.

목원대학교 조재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원은 거창한 목표를 좇기보다는 학습자의 배움 잠재력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 교수자의 열정을 따뜻하게 지퍼주는 마중불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밝히며, CTL의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대학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수, 학생들과 늘 함께 하는 대학교육개발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은 다른 대학 CTL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개 회원교로 구성된 충청권역 대학 CTL 협의회의 회장교 역할을 수행하며, 권역 내 CTL 역량 강화 워크숍 세 차례, 전국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 워크숍, 충청권역 대학 연합 학생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며 대학 CTL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외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충청권역 대학 CTL 역량 강화 워크숍 스케치]



[1차]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분석 & 환류 역량 강화 워크숍



[2차] 학습분석학 기반 교수-학습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워크숍



[3차] 대학 핵심역량 모델링과 CTL 역할 강화 워크숍

그간의 노력들이 감사하게도 좋은 결실로 맺어져 지난 2월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동계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목원대학교는 전국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9대 회장교로 선

출되었다. 올해에도 지난 17년간의 협의회 사업들을 충실히 이어가며 회장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이번 기고를 통해 회장교로서의 몇 가지 사명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각 대학 내에서 CTL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각 권역 대학 CTL 협의회와도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개발센터 소속 교수·학습 전문가(교수, 연구원)들의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회원교와 공동 노력할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신장할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 내 정기적인 '연수(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현재 연구과제 공모 논문 발표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협의회 발행 연구물(대학 교수-학습 연구)을 등재(후보)지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교의 적극적인 소통 매개체로 우리 협의회 누리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몇 해 전 작지만 열정이 강한 CTL로 열심히 달려와 이제 대학 CTL 중심에 서게 된 목원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은 새로운 출발과 함께 한 단계 더 비상(飛上)하기 위한 재도약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과 성과로 보답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한다.